

## 나의 민원 인쇄하기

\*인쇄 페이지 열람 시 인쇄 이력이 기록됩니다.

인쇄자 : 강태환

###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806-023506	신청일	2018-06-03 07:20:41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강태환		
연락처		휴대전화	010-3690-2336
주소	[6170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84번길 7, 덕산아파트 101동 2006호		
진행상황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전자우편	taehwan.kang@gmail.com		

###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민간인 사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세요.
민원내용보기	<p>저는 2014년 부터 사찰을 당하고있는 광주시민입니다. 힘없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정보 기관의 행패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보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반박 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없습니다.</p> <p>저는 정보기관에 비공개 공청회를 제안 한 적이 있으며 정보기관에서 거절 하였습니다. 저는 정보기관의 모든 주장에 반박이 가능하며 떳떳합니다.</p> <p>1. 본인은 2012년 5월 1일 입대하여 27사단 77연대 2대대 5중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p> <p>2. 본인이 상병쯤 당직병 근무중에 당직근무일지 작성을 위해 연대, 사단 일지를 참고 하고 정보사 일지도 궁금하여 1회 열람.</p> <p>3. 기무사에서 2대대장에게 정보사 일지를 열람 하였다는 사실을 알림.</p> <p>4. 2대대장(김성곤?)은 중대장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토론</p> <p>5. 이후 5중대장은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지 말라" 라고 중대교육, 정훈장교는 안보교육 강사에게 본인의 신원조회 의뢰</p> <p>6. 이후 본인은 문제없이 2014년 1월 31일 전역하였음.</p> <p>7. 2014년 당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83-3번지 2층 내당에서 살고있었음. 가옥은 오래되었고 2층 내당과 외당사이 방음이 되지 않음. (현재 내당은 리모델링 한것으로 보임, 당시와 다를 수 있음)</p> <p>8. 2014년 전반기, 본인이 컴퓨터 도중 TOR를 이용하자 외당에서 "TOR를 키네"라는 목소리를 들었음.</p> <p>9. 외당에 사는 사람은 사주, 팔자 등을 보는 땡중이였고 목탁 소리도 들을수 있었음. 국정원 민간인 조력자.영어를 잘 하지 못함. 평소 다른 남성 1명과 같이 있었음.</p> <p>10. 당시에는 상대방의 소속이 정보사 또는 국방부 관련 부처인지 국가정보원인지 알</p>

수가 없었음.

인터넷에서 해커가 미국방부에 접속하여 메모장을 이용해 대화했다는 기사를 보고 메모장에 하고싶은 말을 적어 상대방을 떠보기로 함.

11. 메모장에 “나는 아무것도 잘못 하지않았다”, “사찰은 나쁜것이다” “국정원에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 시켜주면 고맙겠다” 등 또는 이것을 영어로 썼다.

12. 메모패드에 영어로 썼을때 땡중은 누군가와 통화에서 “나는 영어를 잘 모른다” 말했으며

상대방은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거길 가야겠느냐?”, “알파벳은 아느냐?”, “ 철자를 읽어봐라” 라고 하였고 본인은 사찰에대해 확신 하였음.

13. 국정원은 당시 컴퓨터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핸드폰(Iphone 4)도 사찰 하고있었으며 이것은 2014년 2학기 본인이 외국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민간인 조력자가 알고 있었기때문에 인지 하였음.

14. 이후 그 상태가 지속되었고 2014년 말경에 현재 주소로 이사를 하였음. 이사한지 며칠이 안되서 본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중 계단에서 내려오는 국정원 직원을 보았으며 그 직원은 통화중 이었음. 본인은 2015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휴학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 9월달에는 조선대학교 입학사정관팀에서 12월까지 일 하였음.

15. 국정원이 본인을 살해하려는 첫 시도는 본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로 기억함. (2015년 9월-10월) 국정원 직원은 아니였고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 2명 이었음. 한명은 뚱뚱하고 다른 한명은 날씬하고 조선족 같이 생겼음. 그들은 저녁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앞까지 왔으며 “이중잠금이 되어있어서 열어도 못들어 갈것이다”라고 하며 돌아갔음.

16. 이후 홈플러스 계림점 1층 떡볶이 매장, 덕산아파트 앞, 제석산, 광주 봉선동 코코마트 앞 등에서 상주하며 살해 기회를 엿봄.

17. 2016년 3월 본인은 홍콩에 여행을 갔으며 침사추이에 있는 Urban pack 이라는 호스텔에 4인실 Yellow룸 머물렀으며 같은 방에 머무르는 사람 중 문을 기준으로 왼쪽 1층 침대에 머물렀던 외국인은 당시 본인의 핸드폰 (Sony Xperia Z5 Compact, HongKong Firmware 탑재) 을 해킹하였음.

18. 2017년 국정원은 내가 수업을 듣는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또는 경상대 학생 및 무역학과 교수들에게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SNS 단체방(카카오톡 단체채팅으로 추정)을 운영 하였음. 또한 일부 덕산아파트 입주민에게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집을 임대, 구입 하여 민간인 조력자 및 국정원 직원이 원활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음.

19. 본인은 2017년 5월 16일 국정원의 살해시도를 겪고나서 더이상 참을수 없다고 판단. 2017년 5월 17 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사찰사실을 알릴려고 하였으나 국정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문서 반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A4용지로 500장에 해당하는 문서를 반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당 주위에 많은 사람을 파견 하였음. 이로 인해 본인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제보하는것은 포기하였고 본인 집전화로 JTBC에 제보 하였음.

20. 이후 본인은 사찰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국정원이 중간취득해 읽었음, 공익제보, 국가인권위에 제보 또한 하였음. 공익제보 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며 국가인권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

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 받았음.

21. 덕산아파트에 상주했던 국정원 직원은 다른사람과 전화통화에서 “그때 이야기가 국정원장님 귀에 들어가버렸어”, “이제 못 죽이지, 죽일 수 있을때 죽였어야 하는데” 라고 발언함.

22. 서훈 국정원장님은 본인 사찰건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23. 본인은 국정원이 거짓 문건 및 보고 작성을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간첩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보임.

24. 이후 사찰이 지속 되고 본인은 대검찰청에 민원 을 넣었으나 대검찰청이 국정원으로 민원 이송하여 국정원 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켜 일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음.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 할 때 쯤 국정원은 본인 사찰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대상은 주로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진 및 학생들이었음.

25. 수사 진행 하루 뒤 국정원장은 본인 사찰 부서 해체를 지시 하였음. 같은날 국정원은 본인의 의료기록을 치과에 요구하여 취득하였으나 목적은 알 수 없음.

26. 조선대학교 학생 중심으로 사찰 인력을 구성하고있고 단체 채팅방을 운영 중 인것으로 파악 됨.

또한 국정원 직원이 학교에 상주하는것으로 보임.

27. 2017년 11월2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정보위 위원들은 국정원으로 부터 본 문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하였음.

28. 국정원은 민간인을 포섭하여 사찰인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본인의 핸드폰 내용을 민간인에게 유포 함으로써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있음

29. 대학교를 2018년 2월에 졸업하였고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을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 각하 처분.

30. 2018년 5월2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84번길 7, 덕산아파트 101동 2106호에서 정보원 1명 과 국정원직원 1명이 사망, 돈 지급문제로 다툼.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	---------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국가정보원 민원실		
담당자(연락처)	민원담당 (111)		
접수일	2018-06-07 14:16: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6-089918
답변일	2018-06-07 14:16:4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당원과 무관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인쇄